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3월 수출 498억 달러로 월간 실적 역대 2위
- 이 슈 : (경제) 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시사점
- 세 심 록 : 논어(論語)의 재발견
- 북 리 뷰 :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 동향

○ 3월 수출 498억 달러로 월간 실적 역대 2위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97.6억 달러로 2013년 10월(504.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액 기록
 - 수출 : 주요 수출 품목인 무선통신기기(32.1%), 반도체(14.0%), 자동차(15.9%), 선박(18.7%) 등이 호조를 보여 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497.6억 달러 기록
 - 수입 : 원자재(-3.2%) 수입이 철강, 석탄 등을 중심으로 줄었으나 자본재(9.3%) 및 소비재(16.3%) 수입이 늘어 전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455.7억 달러를 기록
 - 무역수지 : 수입에 비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3월 무역수지는 41.9억 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

○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수요 부진, 자산가격 하락, 유로화 강세 등으로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0.5%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 0.6%보다도 낮은 수준
 - 유로존의 실업률이 2013년부터 12%대로 진입하면서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최근 임금 상승률도 하락하면서 수요 진작 효과는 부진
 - 유로존 주택가격 지수는 2011년 2/4분기 101.6에서 2013년 3/4분기 91.4로 하락하는 등 자산가격 하락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최근 유로화 가치가 상승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3/24	4/7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2.7	3.4	3.7	-	-	-	-	-	-
	제조업생산(%)	0.7	-1.6	0.0	0.1	1.8	2.6	-4.5	4.5	-	-	-
	소비자물가(%)	2.2	1.3	1.2	1.4	1.1	1.1	1.1	1.0	1.3	-	-
	실업률(%)	3.2	3.1	3.1	3.0	2.8	3.0	3.5	4.5	-	-	-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08.0	237.8	248.4	68.8	32.9	45.2	-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13	2.79	2.67	3.01	2.90	2.94	2.89	2.85	2.87	2.86	2.88
	원/달러(원)	1,126.8	1,095.0	1,122.2	1,112.2	1,062.1	1,056.7	1,064.8	1,071.3	1,070.9	1,068.6	1,069.7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32.6	1,917.7	2,009.3	1,988.3	1,948.2	1,937.3	1,952.4	1,936.5	1,976.7

주 : GDP성장률,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3/24~4/4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과 시사점¹⁾

○ 개요

-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안정과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 금리를 변화시키는 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1997년 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인플레이션타케팅)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
 - 물가안정을 우선적 목표로 금리정책을 수행하되, 물가안정 하에서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를 변화
-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5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한국은행 총재 재임 동안의 경제상황과 금리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후 4번의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했고, 편의상 각 총재 재임 기간의 경제여건과 금리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봄
 - 금리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경제여건을 살펴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테일러준칙²⁾을 통해 추정된 적정기준금리를 비교해 봄

○ 시기별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 ('전철환' 총재 시기 : 1998.3.6~2002.3)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준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2000년 이후 괴리가 최소화됨
- ('박승' 총재 시기 : 2002.4~2006.3) 기준금리가 카드사태 이전의 적정기준금리를 하회하였고, 후반기에는 상회하는 정책을 수행
- ('이성태' 총재 시기 : 2006.4~2010.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물가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었지만 적정기준금리와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
- ('김중수' 총재 시기 : 2010.4~2014.3)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가운데 금리정책이 유럽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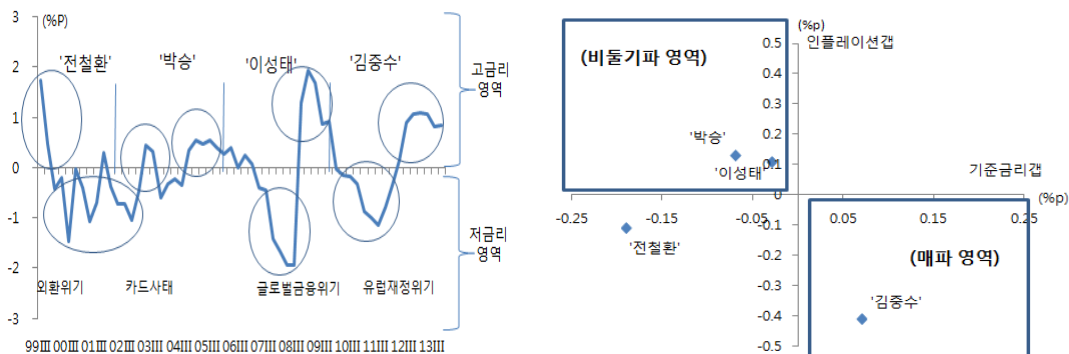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4-15호 (2014. 03. 26.) 에서 발췌 요약.

2) 1992년 존 테일러 교수(스탠퍼드대)가 처음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준칙으로 금리 수준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경제안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준칙의 주된 내용.

○ 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

-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수요 하락,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목표 물가 달성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함
- 금리정책은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영역과 저금리영역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김종수 총재 시절에는 매파적 성격, 박승 총재와 이성태 총재 시절에는 비둘기파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³⁾

< '기준금리-적정기준금리' 추이 > < 총재별 기준금리갭과 인플레이션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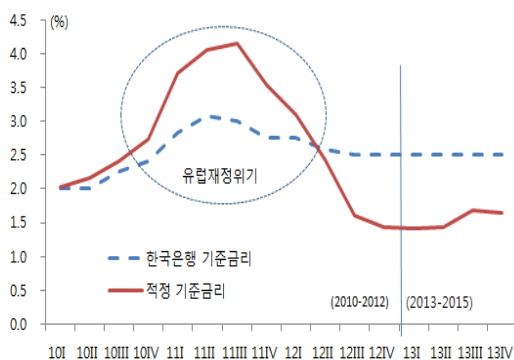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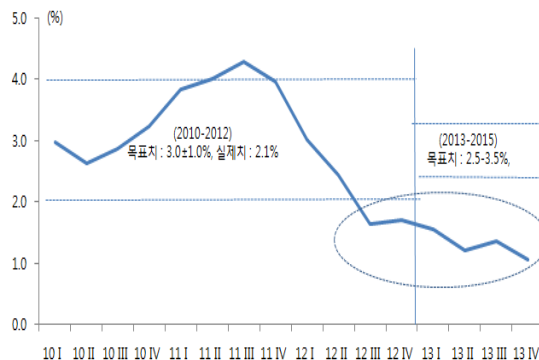
- 주 : 1) 기준금리갭=한국은행 기준금리-적정기준금리, 인플레이션갭=실질인플레이션율-목표인플레이션율.
- 2)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된 1999년 3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각 총재 임기별 기간 평균 사용.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으로 자칫 중기(2013~2015)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짐

< 2010년 이후 기준금리 추이 >



< 2010년 이후 물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3) 통상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매파'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가치를 두고 금리인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중시하여 재정지출 확대 또는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 이슈 : (산업)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⁴⁾

- 지난 1년간 등록된 규제의 증가폭이 과거의 1/2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된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2013년말 기준 등록규제는 1만5천269건이며, 1년 전에 비해 380건 증가
 - MB정부 3년간 연평균 661건 증가한 것에 비하면 1/2정도에 불과
- 강한 규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규제 1건당 규제강도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강한 기준' 규제는 2012년 34.9%에서 2013년 35.1%로, '사전 승인' 규제를 포함한 '강한' 규제는 2012년 55.0%에서 2013년 55.2%로 소폭 증가 추세
 - 건당 규제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 등 규제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전체 규제의 건당 규제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2.382점)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
 - 2013년 8월 현재 경제적 규제의 강도(2.50)가 사회적 규제(2.47)나 행정적 규제(2.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규제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非중요' 규제의 비중이 90%수준에 육박
 - 중앙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2009년 21.2건 ⇒ 2013년 24.8건)
- 규제총량 관리, 규제품질 제고, 지방규제 개혁 등을 위해 노력
 - 규제의 건수 또는 비용 등 규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규제의 강도를 낮추고 규제방식을 선진화하는 등 규제 품질 개선
 -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정부 규제 개혁도 시급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4)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14-14호 (2014. 03. 19) 에서 발췌 요약.

□ 테마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시사점

○ 요약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에 평생교육이 여가활동의 하나로 인식됨.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는 중고령층의 인적자원 활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크게 증가함.

현재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7%로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대다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고령층의 향후 참여 희망률도 15%로 높지 않음.

그러나 예비고령층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어,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중고령층의 사회참여활동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개의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통해, 중고령층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됨. 중고령층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관심영역이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참여 경향과 함께 다수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하는 현상이 포착됨.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①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 확보, ② 평생교육 총괄관리기구 마련, ③ 중고령층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④ 공공과 민간의 평생교육 역할분담, ⑤ 중고령층 평생교육 관점 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의 범위

○ 교육은 크게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됨

-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과정에 속하는 교육
-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스터디클럽 등

○ 평생교육의 범위는 초·중·고 및 대학교의 정규학위 취득과정 뿐 아니라 어학강의, 그림그리기, 수영 등의 취미강습도 포함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강좌도 평생교육

□ 노년기 평생교육의 필요성

○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 증가

- 생애주기상 노년기에는 은퇴 후 여가시간이 많은 시기
 - 보건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은퇴연령의 변화는 적어 노년기 여가시간이 더욱 길어짐
 - 이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가 점차 중요해짐

○ 교육이 노년기 여가활동의 하나로 인식되어 서구사회처럼 평생학습시대,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술과 지식,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빨라 청년기 교육만으로 사회 적응이 힘든 시기
 - 과거 중고령층 교육은 문해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어르신 한글교실이 연상됨
 - 그러나 현세대 노년층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년층 집단내 다양성 증가로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크게 변화됨
- 우리 정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국정과제로 선정⁵⁾
 - 중고령층을 포함,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한 노력 중

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으로 향상시킴(자료 : 청와대(www.president.go.kr)).

○ 평생교육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는 중고령층의 인적자원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을 발생시켜, 노인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필요함
- 노인 및 여성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직업교육 필요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현황⁶⁾

○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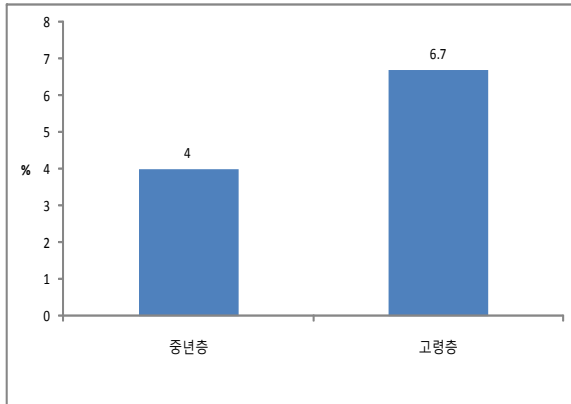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다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 성별로는 여성,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음
 -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가장 많고, 주 1회 37%, 주4회 이상 14%, 월 1회 2%
 - 교육 실시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 5%
 -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고, 일반교양 21%, 건강관리·운동 20%, 정보화 13%
-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향후 참여 희망률도 15%로 낮은 수준
 -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그 다음 건강상 이유(20%)와 시간부족(17%)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임

○ 중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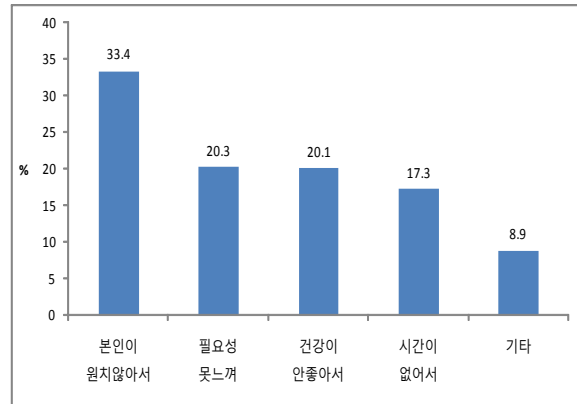
- 50~64세 중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 수준
 - 중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참여할 여가시간 부족
-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
 -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약 40%, 노후 삶에 있어서는 이보다 높은 50%로 확인됨
 - 현재 중년층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약 1/2은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사회활동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⁶⁾ 참여현황 및 제공기관 사례는 “이윤경 외(201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인용하여 작성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



○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중고령층의 특성

- 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의 사회참여활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여성인 경우,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 증가
 -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
 -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 감소

□ 중고령층 평생교육 제공기관 사례

○ 평생교육 제공기관 10곳을 선정하여 공급측면에서 중고령층 평생교육 현황 파악

- 중고령층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
 -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교실 등의 교육전담기관과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2차적 교육기관에서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실시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관에서도 최근 중고령층을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인식하여 평생교육 제공
- 그러나 법적 근거 기관 이외의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중고령층 평생교육 실시
 - 중고령층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기관의 특성별로 우수사례 10곳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현황 파악

< 노인복지법에 따른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제공기관 >

구분	노인복지법상 분류	전달기관
교육 전담기관	노인 교실	시군구(지자체)
		대한노인회
		한국교회노인학교 연합회
		천주교노인대학 연합회
		불교 등 기타 종교기관
2차적 교육기관	노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 평생교육 우수사례기관 >

구분	기관명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지도자교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은평구 평생학습관
종교기관	정릉평생대학
비영리민간단체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도서관	주안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자치회관	불광1동 자치회관
원격형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풍월당아카데미

○ 시간에 따라 중고령층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의 변화 확인

- 중고령층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관심영역 변화
 -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기기 사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소수의 수동적 학습프로그램에서 교육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
 - 동아리 등 자발적 프로그램 활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형태의 아카데미 강좌 증가
- 평생교육 지속참여와 함께 다수의 강좌 동시 수강 경향 포착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낮지만 수강 강좌 수는 1개 이상, 평균 4개의 많은 강좌를 동시에 수강
 - 신규 참여자 보다 지속적인 수업 참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중고령층 대상 수업 외에도 일반성인 교육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
 - 중고령층 대상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외에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동년배 집단과 관계 형성

□ 시사점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필요
 - 신규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고령층에게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 소수 중고령층이 다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상은 교육 참여욕구 자체가 일부 집단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
 -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구조적으로 기존 평생교육 참여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신규 교육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음
 - 공공 및 민간기관의 평생교육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평생교육 포털(가칭)' 개발 및 운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 총괄관리기구 마련으로 자원 효율성 제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계획 및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비전 제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환경 정비 선행
 - 유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수많은 기관에서 중복 제공되는 것 억제하고,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및 업그레이드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치
- 중고령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 중고령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
 - 중고령층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중고령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가령 노인복지론, 노인교육론, 노년학, 노년심리, 노인상담 등) 추가이수제도 도입 고려
- **교육 공급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 공공부문에서는 중고령층 대상의 연령차별적인 프로그램 운영(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보다는 연령통합적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환 고려
- **중고령층 평생교육을 어느 영역에 둘 것인지 관점 정립**
- **전생애발달 관점에서 중고령층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시각 전환**
 - 과거 중고령층의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여가복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수준이었음
 - 현재 이러한 시각 변화했으나 여전히 중고령층은 필수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
 - 근원적으로 중고령층은 시혜 대상이자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 변화되어야 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380-8357, nhui@kihasa@re.kr)

□ 세심록(洗心錄)

○ 논어(論語)의 재발견

최근 논어(論語)를 비롯해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던 공자(孔子)의 말씀을 기업경영, 자기계발 등 현대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결부시켜 쉽게 풀어 쓴 실용서적들이 유행하고 있다. 혹자는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논어를 실용 서적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논어가 철학이나 역사책의 범주에 한정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논어에는 분명 현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경영이나 자기관리와 관련된 풍부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배우고 때에 맞추어 실행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으로부터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학이편(學而篇) 1장(章)의 내용이다. 논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면, 논어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실용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공자는 마치 21세기가 지식사회가 될 것을 예상한 것처럼 배움의 즐거움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능력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인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며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게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성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면, 현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성공한 인생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자기계발 서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 서적들은 읽을 때는 재미있지만, 막상 다 읽고 나서는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좋은 자기계발 서적을 찾느라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의 성공비법을 배우기 위해 논어-혹은 논어 관련 자기계발 서적-를 한 권 구입해 보자. 어느 순간 박제화된 이미지에 가려진 자기계발 컨설턴트로서의 공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 필립 제임스 베일리(1816-1902): 시인

□ 북리뷰

- 제목 : 르네상스 소사이어티⁷⁾

- 저자 : 로프 안센

- 저자 로프 안센은 덴마크 출신 미래학자로 1988~2001년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 대표였으며, 현재는 기업 비전 수립 및 미래전략 컨설팅 기업인 드림컴퍼니의 최고상상력책임자(CIO, Chief Imagination Officer)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드림 소사이어티> 등이 있다.

○ 주요 내용

- 미래 사회의 모습

- 현재의 흐름을 토대로 보면 미래에는 동양과 서양간, 국가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동양에서는 현재 서양 사회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물질적인 꿈을 지향하나 서양의 경우 물질에서 탈물질, 즉 삶의 질이나 행복을 지향하게 됨
-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제3차 산업혁명으로 1인 생산 1인 소비시대가 도래

-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 세계 경제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점차 삶의 목표, 삶의 질, 정서적인 만족,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민 등이 주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임
- 탈물질시대로 진행될수록 소득보다는 행복이나 삶의 만족감이 중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직원들의 힘을 얼마나 잘 북돋아 주는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
- 호모 이모셔널리스(Homo Emotionalis)의 탈물질시대로 진행될수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되어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제품은 부수적인 가치가 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가 주된 가치가 될 것임

-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의 리더

- 서양의 두 번째 르네상스는 비물질적인 가치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행복, 번영, 선한 삶을 통해 비물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임
- 미래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의 CEO는 직원과 고객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며, 수평적 문화에 맞는 권한 분산,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됨

7) 로프 안센(Rolf Jensen), 미카 알토넨(Mika Aaltonen) 지음,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365, 2014.2.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